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혁명의 성지 삼지연에서 성대히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용자가 거연히 빛나는 삼지연시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며 부강번영하는 우리 국가의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한 영광의 땅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끝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대회에 참가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량강도와 삼지연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216사단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혁명의 붉은기로 높이 들고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도약대로 하여 받들어올린 반만년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시대를 안아보면서 조선의 2월이 간직하고있는 심원한 무게와 의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새겨안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서고금에 없는 비범한 탄생과 남다른 성장으로부터 시작된 철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자존의

닛을 심어주시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강국건설의 제일가는 밑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사상과 유산을 가진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를 열화같은 충성심과 드림없는 혁명실천으로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조선은 세계가 우러르는 발전되고 문명한 부흥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투쟁하며 전진하여온 격동의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속에 돌이켜보면서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며 이 땅우에 자력으로 부강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드림없는 의지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시작되게 된다.

조선로동당이 연속적으로 과감하게 전개하는 살림집건설은 이 땅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부흥강국의 새세상을 당겨오기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지향시키는 위대한 당중앙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리념과 완강한 실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2월 12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사랑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천리혜안의 예지, 필승의 령도력으로 문명부강한 강국의 래일, 눈부신 변혁의 새세상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념친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변영기를 더욱 빛내이지》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를 새로운 용기와 자신심에 넘쳐 우리 수도에 또 하나의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성대한 착공으로써 장엄한 2022년도 투쟁의 서막을 열고있는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건설부문 앞에 나선 가장 주되는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멘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수행의 두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난해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평양의 동쪽 관문인 송진, 송화지구에 1만세대에 달하는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우으로써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두번째 해에 계획대로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을 추진할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담보를 마련한 군민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화성지구에서 전개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양양된 투쟁열의와 공세적인 전진기상이 높이 발양되고 더 신심있고 더 의의있는 커다란 성과가 쟁취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시면서 올해의 대건설전투를 강력하고 주도세밀하게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적관도를 포괄하는 대건설전선에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제일 앞서나가야 할 기본전진임을 밝히시고 당의 건설정책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화성지구에 전개된 건설부대들이 기치를 들고 모든 건설전진들의 본보기가 되어 성스러운 건설대전에 지혜와 열정, 투지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정에 넘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개벽

리머 총성의 대격전장에서 새로운 화성속도, 화성신화를 창조할 전체 건설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었다.

장쾌한 퇴성에 이어 착공을 경축하는 축포탄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중앙의 뜻과 의지를 열혈의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파시하는 대건설투쟁에 다시금 총결기한 미더운 군민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하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밝고 창창한 미래를 안겨준 민족대통운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강산에 굽이친 위인 칭송의 대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그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맹세가 한껏 어려웠었다.

와 전국소묘, 서예축전, 우표전시회, 국가도서관람회, 제10차 광명성절로리기술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돐경축 사진전람회가 중앙과 각 도, 시들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들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성스러운 생애를 가슴뜨겁게 전하는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기록영화들과 예술영화들이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에서 상영되었다.

위민헌신의 걸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해 우리 조국은 더 강해지고 이 땅에는 세인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지상락원이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밝혔다.

이것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의 맹세가 아니라 대를 이어 자를 높여 받들어 질 좋은 학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0돐은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천만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투쟁은 열의, 역센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 경축의 꽃바다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과도 같은 영상이 어려와 더욱 가슴젖어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렸다.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하나같이 끓어넘친것은 한평생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신을 강고히 불태우시며 불면불휴의 로고

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이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도의 정을 표시하였다.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과 백두산상체 육경기대회, 전국미술축전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

대를 이어 충성다해갈 신념의 맹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난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전면적발전과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칠 불타는 열의였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위대한

속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유서깊은 삼지연시의 못나무거리에 정일봉을 형상한 대형눈얼음 조각과 붉은기모양의 대형눈조각, 조선의 국화 목란꽃을 형상한 얼음조각 등 다양한 눈얼음조각들이 장식되어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시민들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온 나라에 차넘친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열기는 전인민적의 험난한 조행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대성인,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거세찬 분출이였다.

장군님께서 가슴속깊이 간직하시었던 념원인 사회주의강국을 거머쥘 일떠세우려는 격정넘친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었다.

평안군 삼봉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인 로력영웅 박영애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새로운 승리를 펼쳐가려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 절찬속에 진행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성황리에 진행



삼지연시에 펼쳐진 이채로운 눈얼음조각풍경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과 종합교예공연, 래티도경기 등 성대히 진행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삼지연시,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무도회,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야전복은 말한다,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1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나 전투들에서 무공을 세운 군사령관들의 무훈담과 함께 그들이 차지한 영광찬란한 사령관복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이 전해오고있다.

색깔과 형태는 제각각이던 군최고사령관복들은 레의없이 엄격한 군사체제와 군복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무언의 구령》이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복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위엄 있었다. 으르르하게 금속을 엮기도 하고 금벌을 수놓기도 하였으며 번쩍이는 훈장을 달기도 하였다.

그에 비하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생 입으신 야전복은 너무도 수수하고 평범하였다.

특별한 장식도 없고 금벌매달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에는 그이께서 헤쳐오신 만고공상이 눈물겹게 비껴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 과학성과 불패성을 세계앞에 증명할 거대한 인류사적업적이 무겁게 실려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엄혹했던 나라의 사회주의 수호전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사의 항진인 동시에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세계앞에 중시한 미증유의 인류사적결전이었다.

그날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에 스며든것은 조국의 운명을 각일각 위협하는 사나운 력사의 돌풍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물러르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불타는 사명감이 그이의 심장에 뜨겁게

타오르고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흠뻑새도 말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소속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교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다. ...

다박출조소에서 돌아오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엄숙한 선언은 자신의 심장에 배린 전투명령이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인민이 매일같이 보는 장군님의 모습은 당중앙위원회와 집무실이나 중요회의장의 연단이 아니라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의 작전대장이나 바락새관 고지에 계시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이였다.

당시 우리 인민과 동포들속에는 《선군축지법》전설이 널리 전해졌다.

오늘은 철령의 아흔아홉살이 되어 오성산의 칼바람길을 돌아 전선동부의 최전연초소를 찾았시었다가 하면 매일은 길길이 뛰는 격랑을 타고넘어 전선서부 심방어대의 병사들과 함께 계시었다며 서해의 소금물에 젖은 야전복을 말릴새도 없이 다 음날 이른새벽에는 적들과 군복자락을 스치며 서리발시신을 주고받는 살기찬 판문점을 찾으며 인민군인들에게 혁명적진영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의 주력군, 사회주의수호의 핵심력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준엄한 조국수호의 길, 그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피어린 행군길의 연속이었다.

그이의 야전복은 그대로 백두산야를 종횡무진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군복이었고 돌아가신 야전차는 항일의 전구를 질풍처럼 달리던 빨치산배이었다.

직접이 코앞인 최전방의 작전대 앞에서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시는 장군님의 기상은 백두산악 위에 번쩍 올라서시어 원수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시던 백두산 호랑이, 진실의 김대장이시였다.

한당이 제기함으로써 전사들과 야전복을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

그리움의 대화가 흐른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 흔들리는 눈가루도 유난히 반짝이는 2월의 이 아침, 흰눈덮인 장군봉에 거연히 서서 백두의 눈바람에 야전복자락을 승리의 기폭처럼 날리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기록하신 영상이 승엄히 안겨와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인민의 마음이다.

춘추추동 세월의 비바람, 력사의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온갖 역풍을 맞받아 사회주의조건을 승

의 모습은 항일의 그 나날 대원들과 한솥의 미시가루를 나누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모습 그대로였고 야전복차림으로 종대병실에 서 병사들의 화선음악회를 보아주시는 그이의 친근한 영상은 우등불 타오르는 밀밭속의 빨치산 오라톡에서 전우들과 박수장단 맞추시던 주석님의 호방한 미소가 떠오르게 하였다.

야전복자락의 펄럭임소리는 그대로 혁명승리의 노래가락으로 울려 퍼졌다.

천만대장이 기승을 부려도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한 손에 취락떠락하신 강철의 령장, 핵전쟁의 참화를 들춰우려고 발광하는 원수들의 기도를 불꽃폭우로 만드는 강위력한 전쟁역량을 마련하는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끌어들여 터쳐 울린 경탄과 매혹, 흠모의 목소리를 어찌 일일이 다 전할수 있었는가.

그 시절 세계는 《유일초대국》이라 으시대던 미국이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의 손바닥아래에서 놀아나는 력사의 만화도 현실로 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들린 《3.3.3붕괴설》, 《체제붕괴론》이라는 것들이 《연착륙》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동반자론》이 되어 줄을 지어 평양의 문을 두드리는 회한한 광경도 펼쳐졌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한다.》는 말이 통설로 되었다.

오늘날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선 공화국의 강위력한 힘의

실제앞에서 우리는 모진 광풍이 고스란히 스며든 장군님의 야전복을 더더욱 뜨겁게 안아본다.

우리 장군님 특유의 불굴의 신념, 불타는 희망,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무한한 세계가 담겨져있는 야전복은 선군의 길, 사회주의수호전인 일 마나 피어린 길이었는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해 바친 위대한 애국자의 헌신이 어떤것인가를 소리없이 전하고있다.

그처럼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의 눈바람을 단신으로 이겨내시며 우리 장군님 끊임없이 이어오신 선군의 길이 있어 그 어떤 원수도 넘보지 못하는 우리 조국, 불패의 강국으로 떠오른 조선의 오늘과 무궁한 래일이 있다.

하기에 외국의 한 언론도 《김정일평도자는 왜 세계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것은 크지 않은 조건을 가장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과 장기간의 체제속에서도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기때문이라고, 이런 강한 지도자의 지도 존중할수밖에 없다고 쓴것이 아닌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이 땅우에 강국의 만년토대를 닦으신 철세의 애국자, 회세의 민족적영웅이시다.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은 겹소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하고 영원무궁한 선군승리의 기폭으로 우리의 마음속깊이 새겨져있다.

리에도 이끌어 세기의 상상봉, 기적의 명마루우에 올려세우신 민족의 영웅.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강성부흥의 령명을 맞이한 행복의 그날까지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번 야전복을 벗으신적 없으시였다.

장군님과 야전복, 때여놓을래야 때여놓을수 없는 이 가슴뜨거운 말과 더불어 한평생 애국애족으로 불태운 그이의 위대한 한생을 돌이켜본다.

자신께서 헌신하는것만큼 인민에게 행복이 차례진다는 비상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해 걸으신 길은 그 열 마이며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은 또 얼마나 무수히 많은가.

그 길에는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해 한겨울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며 질풍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이야기도 있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고 또 찾으시고 비날론복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이의 소박함과 겸박성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 승엄한 마음으로 그앞에 서면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그이의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 그리고 한없이 고매하신 인민적정모가 뜨겁게 어려온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선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던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눌것이 없다고, 나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이 생생히 들려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끼고 밤낮을 쉬지 않고 하시면서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일요일과 명절날은 물론 자신의 생신날마저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또다시 남으로 쉬임없이 달리신 빨치산식 강행군과 쉼없는 무더위를 뚫고헤치신 삼복철강행군, 강구위속에서 단행하신 눈보라강행군,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은 눈물없는이 더듬을수 없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적대사사이다.

민의 행복이 그만큼 커지고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이 더 많이 일떠섰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수한 야전복과 더불어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야전복차림으로 나서시기만 하여도 우리 인민은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단호한 결심을 알았고 펄럭이는 야전복자락을 보며 장군의 배짱과 담력을 배웠으며 환한 미소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수 있었다.

하기에 야전복차림의 우리 장군님을 멀리서 보기만 하여도 열광의 환호를 저절로 터쳐올리고 그이께서 앞장서 가시는 길을 스스로림없이 따라나선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었다.

정녕 세계의 정상에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준엄과 영광, 민족의 통상과 번영은 장군님의 소박한 야전복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에는 야전복차림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언제나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주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수대인덕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인민의 앞날과 조국의 미래를 속속해주시는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혁명평도의 길에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같은 조국애와 애국헌신의 의지가 어린 장군님의 그 야전복을 심장에 안으시고 겸손한 령길과 하늘길, 바다길을 오늘도 이어가고계시다.

그렇다. 야전복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의 기폭,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장군님의 야전복.

야전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송고한 후대사랑과 뜨거운 동포애의 발현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데 평양에서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제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11(2022)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된것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는것을 조선로동당의 국가적 정책으로 수립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해달라는 문제가 중요의제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육아법이 채택되게 된것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육아법에는 어린이들을 나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조국의 통일과 통상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이 국가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 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것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해외동포들을 한식솔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해외동포들을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한품에 안아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이번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뜻을 이어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동포중시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해외동포권익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더욱 높여주는것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결정들과 법령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부흥강국의 위대한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본사기자 리설

또다시 울려 퍼진 인민사랑의 발파소리



《파-팡, 파르릉!》

지난 12일 평양시의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장엄한 발파폭음이 2월의 봄바람에 울려 퍼졌다.

불과 한해전 송신, 송화지구에서 울리었던 발파소리가 오늘은 또다시 화성지구에서 울려 퍼져 이 전역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케 하는 위훈을 고고했다.

잡자던 겨울을 깨우는 봄의 화성이런가 오랜 세월 한적하던 땅우에 인민사랑의 불피성을 울려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 나라의 남나로소가 현대적인 새집에서 부림없이 살라고 또다시 천지개벽의 휘황한 설개도를 펼쳐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다가오는 태양전에 펼쳐질 송신, 송화지구의 새집들이경사를 눈앞에 그려보며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속에 설레이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부

족하신듯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장엄한 발파소리를 울리도록 해주신것이다.

지금의 대건설전투는 보통때와는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심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와 때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는 수시로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생활에도 각종 악영향을 미쳐 행성의 도처에서는 한숨소리만이 높아가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인민사랑의 배아리, 부흥번영을 우후죽순처럼 일떠뜨는 전진전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고 있다.

그 벽간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선경지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뜨는 전진전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애과학자지리, 령명지리, 삼지연시와 무도, 장제도에 일떠선 아담한 살림집들, 걸터치구의 산악협곡도시와 은과과과 대청리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일떠선 주택지들, 머지않아 새집들이 경사로 들쭉게 났을 보듯강강안다락식주택들...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다.

새로운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의 발파소리를 들으며 누구나 환희롭게 그려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경애하는 태양의 성지와 잇닿아있는 명당자리에 머지않아 펼쳐질 인민사랑의 별천지들.

본사기자 리경월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5)

불멸의 통일친필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해가도록

판문점에는 절세위인의 존귀한 존함이 새겨진 친필비가 있다. 활달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글씨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 마지막 막으로 남기신 친필이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셨으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셨겠는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기어 이 안아오실 철석의 신념과 확신에 넘쳐 우리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조국통일문건에 한 자두자 새기신 불멸의 친필.



《김 일 성 1994. 7. 7.》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으신 숭고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어려여있는 이 역사적인 친필을 정히 받들어 후세에 길이길이 빛나도록 해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주체84(1995)년 8월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판문점에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다.

그러는 온 겨레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드림없는 신념을 반영하여 82개의 목란꽃송이가 부각되어있다. 비문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관계 문건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김 일 성 1994. 7. 7.》

이라는 글씨가 그의 필체 그대로 새겨져있다. 그리고 비문판아래 목란꽃장식부분 윗단에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는 사적비문이 새겨져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피눈물의 7월, 누구보다도 더 큰 상심의 아픔을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김일성주석께서 마지막으로 비문판에 길이 전해갈 귀중한 국보로 잘 보관하도록 이주시었다. 그리고 주체84(1995)년 5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길이 전해가도록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울때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친필비형성도 안으로부터 해설문내용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친필비는 기본주제부분인 비문판과 목란꽃장식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비들의 총너비는 영히히 있을수 없는 1994년을 의미하여 9.4m로, 비문판의 너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날인 7월 7일을 상징하여 7.7m로 되어 있다. 목란꽃장식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82돐을 맞으시는 해에 불멸의 친필을 남기시었다는것과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영히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마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도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의지를 표명 하시었다. 참으로 판문점의 친필비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존귀한 존함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하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통일 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김일성주석님의 친필에는 수천수만자라도 다 적을수 없는 위대한 력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쏟아내신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여있다. 하기에 우리 민족 중 누구나 통일친필비를 보면서 주석님을 뜨겁게 경모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도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의지를 표명 하시었다. 참으로 판문점의 친필비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존귀한 존함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하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통일 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김일성주석님의 친필에는 수천수만자라도 다 적을수 없는 위대한 력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쏟아내신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여있다. 하기에 우리 민족 중 누구나 통일친필비를 보면서 주석님을 뜨겁게 경모

조선은 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해답을 주는 고귀한 명언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었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고 지어 민족성까지 말살되고있다. 민족분열은 동족사이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민족의 분열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70여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량탄과 민족의 분열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지금 조선사람치고 그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에 출신이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려 민족에게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의지가 있다. 오늘의 조선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당국과 분열을 강요당하

었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높이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이 땅위에 하나의 통일조선을 일떠세워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있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높이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이 땅위에 하나의 통일조선을 일떠세워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족자주의식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자주의식은 자기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아가려는 의지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민족자주의식을 잠먹는 망국의

결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 20세기 초 우리 나라가 섬나라로 랑개들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부재무능한 조선봉건정부가 국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지킬 생각이 하지 않고 사대주의, 외세의존에 매달린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자기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조선에서는 민족내부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구

결하는 반민족적행위가 계속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림장을 가져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온 겨레는 확고한 민족자주의식을 지닐 때 못해별 일이 없다는것을 깨이 새기고 민족자주의식을 잠먹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대단결 5대방침관철을 위한 투쟁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1998년 6월 10일 평양에서 공화국정당, 단체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중대한 발기가 울려나온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화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중학생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종교인협회회를 비롯한 공화국의 정당,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명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고 조국해방 53돐에 즈음하여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가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통일대추전을 진행할때 대한 공화국의 제외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해외측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추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해외측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 남, 해외측에서 각기 3명씩으로 하는 추진공동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대추전행사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한편 관제어용기구를 조작하고 거기에 《민간단체》의 모자를 끼워 추진행사에 끼우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활동을 적극 벌리었다. 남조선과 해외에서도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리적단체》 규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 하였으며 범민련 해외본부도 8.15통일대추전준비위원회 결성공보를 통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구심체인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대추전참가를 가로막고있는 남

조선당국의 범죄적책동을 통일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신랄히 규탄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발기와 그 실현을 위한 온 민족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은 조국해방 53돐을 맞으며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다. 통일대추전에는 공화국에서 28개, 남조선에서 2개, 해외에서 38개 모두 68개 정당, 단체의 대표 800여명을 비롯하여 2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남조선의 《한총련》 대표들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통일대추전에 참가하여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3차려단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8년 8월 15일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과 각계각층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판문점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

추전》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어 동포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 제3차 범청학련총회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외의동포청년학생 제3차련석회의》, 8.15통일대추전 미술전시회와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행사들이 펼쳐졌다. 대회와 회의들에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와 결의들이 과녁되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판문점공동선언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 제3차 범청학련총회 결의문과 해외의동포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하여 련방조국통일 앞당기자》를 채택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창건 50돐전야에 열린 1998년 8.15통일대추전은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고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2)

조완구선생은 독립의 뜻을 품고 북간도로 망명한지 31년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기나긴 이국에서의 망명살이를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왔건만 선생에게는 기쁨보다 쓸쓸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십년세월 남편을 여타게 기다리던 안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해방으로 들끓던 나라는 또다시 외세에 의해 두동강이 났다. 당시 선생은 자기의 심중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금 나라같이 이 지경으로 두동강이 났고 제각기 제 목소리만 높이며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니 우리가 나라를 찾았다고 발버둥

치며 완전한 독립을 바라던 것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우리의 앞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사실 상해림시정부의 요인 이었던 선생도 《개인자적》의 명목으로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고야 남조선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에서는 혼란된 정국과 사회적무질서속에서 매일같이 형형색색의 정치세력들이 나타나고 새 정당, 새 단체가 연이어 출현하였으며 일개 나 불리는 사람은 저마다 애국자로, 정치가로 자처하며 군중을 우롱하였다. 지어 친일세력들까지도

《한민당》이라는것을 결성하였으며 상해림시정부의 배척을 받고 오래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친미반공분자로 전락된 리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것을 구성하고 총재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외세의 군화발발에 또다시 짓밟히운 남평당은 좌파와 우파, 중간과 등 파벌세상으로 화했다. 더우기 리승만은 미국의 사후하에 로골적으로 《단선단정》조직의 길로 홀달음치고있었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은 조완구선생을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관선의원들중 한사람으로 지명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이를 단언 거부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의 음모적인 각본에 따라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 지맥으로 잇닿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국토량탄과 민족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준엄한 시기 조완구선생은 분연히 단선반대투쟁의 앞장에 섰다. 선생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문제에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되어 국토량탄과 민족분열의 위기가 심화되던 1947년 9월에 김구의 비서장으로서 흥명회선생과의 련계밑에 김구선생이 공화국이 제시한 남북협력회의 소집제안에 호응해나서도록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린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래일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며 민족문화유산은 그 역사의 유구함과 해당 민족의 창조적재능, 민족정신을 반영하고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민족유산 보호정책과 세심한 관심속에 조선민족의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용감하고 진취적인 정신과 기질이 습배인 문화유산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관리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보호월간으로 정하고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누구나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고려시기에 쌓은 천리장성의 함경남도구간

과 념변철용성, 정방산성, 풍천읍성, 장연토성을 비롯한 여러 성과유적의 성벽을 보수하였다.

이밖에 개성의 왕건왕릉과 송양사원 그리고 유명한 고구려벽화무덤들인 강서세무덤, 덕흥리벽화무덤과 안국사 대웅보전, 강계아사, 최현명명사를 비롯한 수십개 대상에 대한 보수와 보수를 하고 주변들에 많은 나무들도 심었다.

또한 겨울철에 자연적으로인해 손상된 역사유적들을 복구보원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법운암, 통곡서원, 광범사, 량천사 등을 보수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적극 발굴수집하고 심의등록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민요 《아리랑》, 김치담그기공습, 씨름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사회적관습과 로동생활, 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조선식지보양식, 비단생산기술, 조선장기, 썰매타기, 꿀벌치기 등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앞속에 묻힌 보석도 캐내야 진가를 알수 있고 빛을 뿌리는것처럼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야 자기의 가치를 빛내일수 있는 법이다.

애국애족의 심원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민족유산에 주체적관점에서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력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게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어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해 선조들의 넋과 체취, 습결이 그대로 백박치는 문화유산들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의 증견자로, 민족의 재보로 세세년년 빛을 뿌리고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척로를 열어나간다

공화국의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리론과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연구 및 제품생산 기업이다.

지난 기간 이곳 연구소에서는 국가적으로 의의있는 많은 첨단인공지능기술성과들이 이룩되어 나라의 인공지능기술발전에서 적극 기여하여 왔다.

《전국정보화성과 전망회-2021》 인공지능프로그램경연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한 이곳 연구소에서는 지난

해에만도 여러가지 첨단인공지능기술제품을 완성하여 내놓아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음성인식범위가 풍부하면서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가지 첨단인공지능기술제품들이 개발되고있다.

이 첨단제품개발을 주도하고있는것은 20대, 30대의 젊고 쟁쟁한 청년연구사들이라고 한다.

청춘시절에 세상을 놀라울 큰것을 연구해보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진 이곳 연구사들의 노력에 의해 나라의 인공지능기술은 세계의 첨단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

고있다.

2018년, 2019년, 2021년 공화국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어 국제대회를 쟁취하였지만 이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연구소의 개발집단이다.

박사, 부교수인 한승주부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인공지능기술수준은 통남산의 과학자들이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첨단들과전에서 생의 보람과 희열을 찾고있는 우리 연구집단입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인공지능기술부문의 과학연구중심, 학술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멋있게 수행할수 있게 세계앞에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개발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12살 난 봄순이는 이악쟁이었다.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을 줄 몰랐고 학급에서 한번도 1등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던 봄순이는 어느날 갑자기 교열이 심하게 나고 센 기침을 하면서 앓아눕게 되었다.

왕진났던 의사선생님들은 급성폐염인데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떻게 입원을 해...) 봄순이는 몸이 아픈 걱정보다도 한달후에 있게 될 학기말시험이 더 걱정스러웠다.

수업에 한시간이라도 빠지면 1, 2등을 다투던 하는 같은 책상의 광범이가 자기를 따라알설것은 분명했고 어쩌면 다른 동무들에게도 아예 뒤떨어질수 있다는 위구심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딸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 엄마는 봄순이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다.

《너는 괜한 걱정을 하고있

독자문답 제98호로 권수혜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는 교육의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공화국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된다.

국가계획에 따라 학교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자금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교편물, 교육기자재, 실험실습비들을 보장하고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학교후원단체로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보장하기 위한 후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는데 대한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주제103(2014)년 8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교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재양성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은 거름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무를 잘 키우려면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하고 비옥한 토양은 거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재양성에서 전환

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릴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공화국 각지의 도, 시, 군들에서 러 대학의 교사들과 도사관, 기술사, 체육관 등이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몇몇이건축물들로 훌륭히 일

공사가 성과적으로 계속되고 1만 1400여개 교실이 다기능화되어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후대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사회적인 교육지원풍속에 전국적으로 3500여개 실험실습실의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졌다.

각지의 교원대학건설 및 개건현대화사업에서도 진전이 이룩되어 여러 대학의 교사들과 도사관, 기술사, 체육관 등이 시대의 요구를 체현한 몇몇이건축물들로 훌륭히 일

본사기자 김진혁

남조선산지 《신동아》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마구 파괴되고 도굴당하는 남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썼다.

문화유산보존을 가로막는 최대문제의 하나는 절도와 도굴이다. 고고학계가 고려말 박익의 무덤에서 사면풍속화를 발굴하였다. 그런데 서쪽면과 동쪽면에 그려진 《인물행렬도》를 통하여 고려후기 남부석과 생활풍속을 확실히 해준 박익의 무덤도 이미 도굴범에게 털린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도굴범들은 한쪽벽면을 허물어 풍속화를 망쳐놓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무령왕릉과 다호리고분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굴야사를 들추어보면 도굴범들이 한번 휘젓고 지나간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뒤늦게 《력사적발견》이라는 식으로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발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도굴범의 솜씨가 한수 우라는 말이다.

경주는 시내뿐 아니라 시외곽에도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 도심에 자리잡은 유산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는 관계로 그러대로 보존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도심외곽의 유산들이다.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에서만 전덕왕릉, 정혜사지 13층석탑이 각각 도굴됐다. 이런 식으로 경북에서 국보와 보물 등 12건의 국가지

정문화재가 도난, 도굴, 화재로 파괴되거나 분실되었으며 지방문화재는 무려 33건이 훼손되었다.

도굴과 도적질은 무형문화재에도 레이가 없다. 구체적사례로



전남 강진병영을 지켜주던 자그마한 벽수 한쌍, 경남 사천군 축동리의 벽수 한쌍도 사라졌다. 제주도에서는 동자석이 수난을 겪고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와 광주군에서 남한산성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기존 화강암석과 막돌대신 기계로 《두부 자르듯》 자른 화강암석으로 공사를 진행해 문화유적을 오히려 파괴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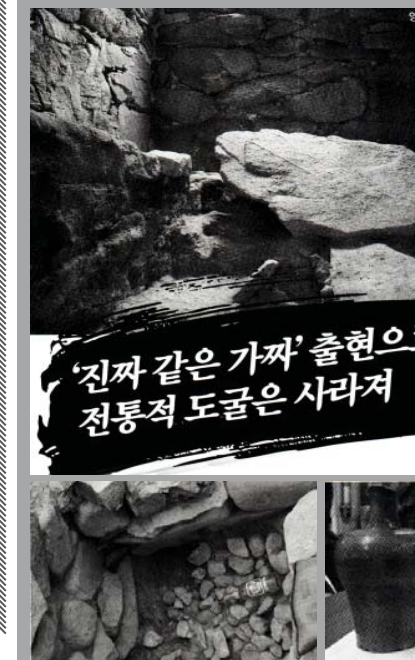
이런 식의 문화유적파괴행위는 이미 북한산성과 경기도 이천 설봉산성 등의 복원공사에서도 나타났다.

런천군 전곡리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구석기유적으로 잠초만 무성할뿐 방치된 상태고 관리인조차 없이 쓸쓸하게 있다.

경북 제2석굴암의 주벽을 보러 왔는지 음식물 먹으러 왔는지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을 외곡시킨 개발이 가져온 병폐의 현장을 보는것 같아 쓸쓸하기만 하다.

우리가 흔히 《명명》이라고 레 찬해오던것을 상당부분 파괴하면서 어떻게 문화유산을 좋게 보존할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다. 옥류아동병원에는 의사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공부 배워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입원해서도 학교에서 처럼 수업을 받을수 있어.》

병원의 교실.

병원이라고 하면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사선생님들과 변색거리는 의로기들만 있을 줄 알고있던 봄순이었다.

하여 봄순이는 아무런 걱정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학교에서 나가던 과정에 맞춰 수업도 받게 되었다.

《소년정수》, 《나비와 수탉》, 《명리한 너구리》, 《술고덕된 꿀꿀이》를 비롯하여 조국의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속에서도 대단히 인기있는 만화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들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방들과 복도의 벽면을 짙게 꾸며 실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병원의 중앙홀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형상한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있었는데 바라보노라면 화려하게 장식된 극장에 온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저기에서 동화의 세계에 심취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철민선생은 이 모든 그림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한친한 다 보아주시고 미술가력까지 친히 보내주시어 병원복도의 벽면들에 그려놓게 하시었다고 귀띔해주었다.

몹시 놀라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대단히 세심하고 다신하심분이라는 생각이 다시한번 들었다.

봄순이가 있다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여러곳에 꾸러진 실내놀이장과 휴식장들에서 자기가 환자라는것도 잊고 뛰노는 귀여운 아이

들을 볼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출런듯 바라보는 나에게 안내원은 말해주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가 매 파벌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입원한 어린이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는것,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러진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이름이 오르게 된다는것, 병원에서 교육사업은 학생의 교육자가 수업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입원환자들의 학년과 지능상태등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개별지도가 위주로 되고있다는것을.

봄순이는 방에 없었다.

담당간호원은 봄순이가 어머니와 함께 중학교교실에 있을거라고 했다. 배워준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하러 간다면서 나갔다는것이였다.

순간 반가운 감정이 생겼다.

《철민선생, 온 가족이 다 모였군요. 난 봄순이 엄마까지 만나볼수 있겠고.》

봄순이가 쓰던 사물함에 있는 펼쳐진 몇권의 학습장과 교과서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그 이악쟁이가 금방까지도 공부를 한듯했다.

아직은 이름밖에 모르는 봄순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그 책들을 펼쳐보았다. 또박또박 곱게 쓴 글씨는 봄순이가 참으로 똑똑한 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듯있었다.

이때 내곁에서 다른 학습장을 들여다보던 안내원은 《선생님!》 하고 나를 찾더니 펼쳐든 학습장을 내게 내밀었다. 들여다보니 봄순이의 일기였다.

아무리 아이의 일기라도 남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승인한것이라 나는 마음의 부담없이 읽어내었다.

《너는 괜한 걱정을 하고있

《철민선생의 따님한테 나도 함께 둘러보고싶군요. 봄순이도 볼겸, 병원도 구경할겸 환자들이 공부한다는 교실에도 둘러보고싶구요.》

나는 이모저모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옥류아동병원결을 여러번 지나면서도 거기에 학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될것이라고 확신하며 나는 철민선생을 따라 봄순이가 있는 옥류아동병원으로 향했다.

본사기자

재중동포 김영란

서론 평화파괴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력사상 가장 역겨운 권력다툼》

—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이 비난 —

최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군사연습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1월 판도린군수역에서 진행된 다국적연합군합동수습훈련과 다국적수중수리훈련,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사이 남조선에서 벌어진 미해군독수부대와 남조선해군독수부대의 호환기해상 및 지상명예준비태세훈련이다.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는 타이완해역에서 미국주도의 다국적연합해상훈련 《코브라 골드》가 진행되는데 남조선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미군과 함께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40차이상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한 내용과 관련사진들을 공개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한편 남조선미국일본사이에 《국방장관전화대화》, 외교장관회의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여기에서는 그 누구의 《위협》,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3자공조》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쟁연습과 불순한 모의관들은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군사적, 정치적결탁이 더욱 강화되고있음을 웅변해주는 실례들이다.

그 무분별하고 무모한 책동들

의 첫번째 목표가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었다.

최근에 남조선미국동맹, 미일동맹의 강화가 《한미일3자공조》강화로 확대, 본격화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질질적으로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역력들이 그들의 침략 야망실현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아시아태평양전략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는 불안과 조바심이 그만큼 증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과 일본을 대조선전략, 아시아태평양전략 실현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더 거추차기어 놓으려는 미국의 흉심을 드러낸것이라고도 봐야 할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한미일 삼각공조 동맹이 한미동맹과 다른것은 《한국》과 일본(자

위대)를 통해서 운용하려는것이다. 말이 좋아 《한미일포괄적동맹협력체》이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쟁도구로 전락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평하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전쟁책동과 정치적사적결탁강화는 공화국이 자위적

역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준다.

아울러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정 필

역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준다.

아울러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정 필



또다시 드러난 정치시정배의 추악한 본색

남조선에서 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도덕적결함과 정치보복성망언으로 하여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윤석열이 구두를 신은채로 맞은편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거들먹거린것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회적물의를 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중앞에서 다리를 째 벌리는 《적별남》,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짚고 살인광, 군사특재자를 미화하고도 사회를 요구하는 민심이 보라는듯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대치한 《개사과》 논란, 손바닥에 《王》(임금 왕)을 써놓은 선거운동용 벌린 《왕》자 논란, 지어 자기편 사람들도 《별치》, 《고고어》로 멸시하는 망언, 망동들로 하여 남조선정치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아온 윤석열이다.

그러한 망동이 이제는 도를 넘어 사람들이 않는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는 망탕정도 서슴없이 하게 된것이다.

시민들은 《설치류》나 같고 국민은 발밑에 놓여야 한다는 《국민의힘》것들의 반인민적인 관점과 도덕적저열

성을 그대로 받아먹은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은 이렇게 비난하였다.

《열로 (책벌)을 못하니 앞으로 (쪽벌)인가?》, 《전세 련차가 윤석열 안방인가?》, 《불상식에 매번 경악한다. 평생 특권과 권위로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 《정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이런것을 못한단다.》, 《자신의 더러운 구두발이 밟히면 좌석에 앉는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에 오물을 끼는 행위》...

어느 한 평론가는 《윤석열의 선거구호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키웠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잘못 키웠다. 도대체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안하무인의 인간을, 민폐다. 데리고 가라.》고 혹평하였다.

한편 윤석열의 《적폐청산》발언은 남조선정국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고 한다.

윤석열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에서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리용하여 많은 범죄를 저지른것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것이 《정치보복》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기

자의 질문에는 현 《정권》이 하는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다음 《정권》이 하는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즉시 반박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의 발언은 가뜰이나 혼란스러운 남조선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과 《검찰공화국》창설야욕을 날발이 드러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보복정치, 조국특정치가 판무하고 사회적불행이 뒤따를것이다. 이제 조국불복도 처벌당하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숨어들어 유인물을 뿌려야 하는 그런 폭압정치의 나라, 공안정치의 나라로 되돌아갈것이다.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칼출선전초고이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이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도 윤석열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제직때에 이 《정부》의 적폐를 알면서도 못본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것인가라고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응해나서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도적이 제발 저런격》, 《윤석열을 흠집내려는



이렇게 균형을 하려고

《살기싫다 너만살라》

《자영업비서관 커녕 행정관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삭발한 머리 카락도 전할 못했다. 차마 버릴수 없어서 그냥 가져 왔다.》

이것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남조선당국과 정치권을 단죄하는 자영업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요구하여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른 머리카락과 요구사항을 당국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애 민주로총처럼 거리로

《대규모 선제적지원》, 《상인들, 자영업자들, 맘출려 자기 노력으로 돈버는 사람들, 이런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 《긴급재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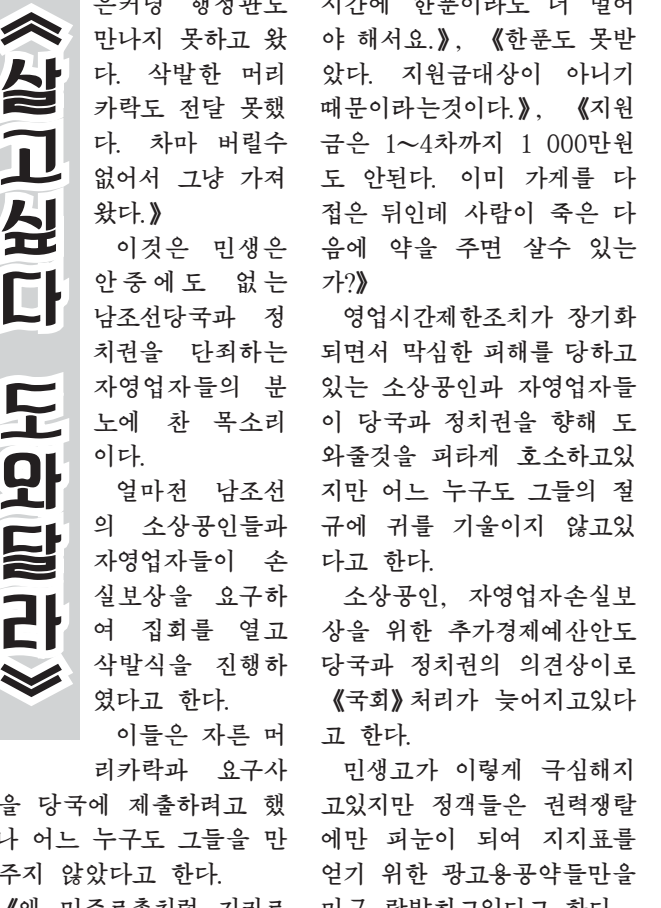
남조선의 한 언론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추가경제에산안을 편성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있지만 어느 후보도 경제를 활성화할것이란 깃대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제실리기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와닿지 않고있다는 분석이다.》라고 평하였다.

당국과 정치권에 호소도 하고 눈물겨운 사

발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두둔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1일1방언》후보인 윤석열이 이번 《적폐청산》이라는 발언을 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정국은 진보세력 대 보수세력의 대결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저저마다 세력결집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정치적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지어 보수언론들까지도 윤석열을 향해 《사실상 정치보복이다》, 《불필요한 일이



본사기자 황금숙

《애 민주로총처럼 거리로

《서울과 그 주변도시, 14채의 집이 있다. 다섯가구가 과거에 거쳐 왔거나 지금 살고있는 세집이다. 삶을 같이먹는다식게 엉망인 집도 있었고 그마저 언젠개 내몰릴지 몰라 불안한 집도 있었다.》

세상이 《집》에 관해 말하는동안 그 세 집들이 주인공자리에 선 적은 별로 없다. 《내 집》은 아니며 돈이 되는 집도 아니다. 《전세대란》, 《월세대란》 하며 이름붙여주는 순간조차 매매시장 불균형의 부수적인 피해자로 불려나온 집이다. 집이란 무릇 내 집마련에 실패했거나 아직은 도전중인 사람들이 반드시 마련, 장만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표현에 의

심한 점이 없다. 세입자구의 바람은 명백히 행복해지는것이다. 안정적으로 집에 사는 것이다. 집을 살수 있는지, 집이 얼마인지, 얼마가 될것인지의 생각하지 않는다. 후조차 없다. 서러웠다. 여기는 다만 사다리의 층락이고

《남의 집, 나의 집》

가과른 집값상승, 금리인상 분위기에 《내 집마련》을 꿈꾸수 있는이는 점점 줄어들어간다.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그 틈에 끼는건 막대한 위험을 짊어지는 일이다. 소유가 다수의 꿈이기 어렵다. 《남조선잡지》 《한겨레21》 1월 31일호에서 전제)

1980년대 서울땡이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개발지역에서 펼쳐진 격렬한 철거민투쟁은 《주거생존권보장》을 요구했다. 내 집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운동은 아니다. 서울을 떠날수 없는 요구다.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30대는 2017년 180만 5000명에서 2020년 168만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가과른 집값상승, 금리인상 분위기에 《내 집마련》을 꿈꾸수 있는이는 점점 줄어들어간다.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그 틈에 끼는건 막대한 위험을 짊어지는 일이다. 소유가 다수의 꿈이기 어렵다. 《남조선잡지》 《한겨레21》 1월 31일호에서 전제)

《서울과 그 주변도시, 14채의 집이 있다. 다섯가구가 과거에 거쳐 왔거나 지금 살고있는 세집이다. 삶을 같이먹는다식게 엉망인 집도 있었고 그마저 언젠개 내몰릴지 몰라 불안한 집도 있었다.》

《보국대》 등의 첫째가는 선배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창세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창세기명》한 사람에게 호적에 가입하였는가 하면 《창세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물자《배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일자리에 채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제는 제정된 기간내에 《창세기명》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성과 이름을 고쳐놓을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어놓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협박의 방법으로 일본식으로 위조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이 일단 《창세기명》을 한 후에는 조선식의 성명제로 되돌아갈수 없게 하였다.

《일본사람》이 되는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공부하는 자식을 퇴학시키겠다는 위협을 받고 《창세기명》을 한 아버지가 조상에게 진 《죄》를 벗을길 없어 돌을 안고 무릎에 빠져죽는 사건이 빚어지는 등 비극적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창세기명》은 일제가 감행한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창세기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야마 지로

정월대보름날 평양의 밤풍경



〈천연기념물〉

리명수폭포

리명수폭포는 량강도 삼지연시 리명수동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는 100만년전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리명수팔짜기의 오른쪽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이 있는데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물줄기 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기본물줄기들은 쏟아져내려다가 바위턱에 부딪혀 물안개를 일으키며 구슬같은 물방울로 흩어지거나 여러 줄기로 갈라져내리며 그것이 다시 모여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면서 리명수폭포의 인공호수로 떨어진다.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를 축소하여 한곳에 모아놓은 듯한 폭포는 물줄기들 사이에 드러

난 검은 바위, 폭포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주변의 나무들이 서로 잘 어울려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 있으며 철따라 색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봄철에는 진달래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이 폭포와 호수에 어리어 색다른 경치를 나타내며 맑은 날에는 폭포에서 튀어나오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칠색무지개를 이루어 환

호한감을 준다. 겨울철에는 얼음폭포로 변하나 얼지 않은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얼음고드름사이로 흐르는 물도 있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만나 생긴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붙어서 흰 서리꽃을 피워 이 일대를 서리꽃숲으로 변하게 한다.

이 폭포는 보기 드문 신기한 지하수폭포로서 풍치상의 가치가 있으며 주제69(1980)년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폭포벽우에는 정자가 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글자는 병사와 같고 글뜻은 정수와 같다. 글자는 형식이고 글뜻은 사상적내용이라는 뜻으로 글에서 사상이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에 객관적조건이 좋고나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글에서 잘되고 못된것은 내게 달렸고 시비하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있다. 잘못된것은 자기를 탓하며 자기 자랑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겸손하고 허심하라는 것을 이르는 말.

24절기의 하나 우수

우수란 눈석이물이 흐르면서 언 땅을 녹이고 생물들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수날 평양지방에서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상용시간)은 각각 7시 28분, 18시 18분이고 낮길이는 10.92시간이다.

이날 평양에서 진정오시는 시간은 12시 51분이고 이때의 태양높이는 40.0°이다. 우수날에 들어서면 땅면최고온도뿐 아니라 최고기온도

0°C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날에는 따뜻한 해빛에 언 땅이 녹고 윤기가 흐르며 구수한 흙냄새가 풍긴다.

또한 물기를 담백 머금은 산, 들, 언덕, 골짜기에서 물이 피어오르듯 김이 뿜어져 나오며 만산에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북쪽을 향하며 하늘을 날오는 기러기소리가 들린다.

올해의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음농일것갈소이다. 최서방은 선선히 물건을 받았다.

《내가 잘 간수했다가 줄러이니 넘려말구 다녀오게.》 그가 떠난지 이틀후 한낮이 좀 지났을 때 최서방이 춘득이네 빈집과 한중간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봄철꽃샘바람이 살랑거리는 고개너머쪽으로 달려쳐며 달려오는 연기가 보이었다.



바느질로 꼼꼼히 기워 봉합을 한 질신만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남김 유물인데 이 춘득이한테는 보물이라 할지 가보라 할지... 그런가... 집을 비우고 갈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최서방님께 말걸어야 마

산불이 났나보다 생각하며 급히 고개우에 올라서보니 불은 자기 마을에서, 아니 자기 집에서 나고있었다. 한중간일이라는게 불과 열을 다루는것이어서 불이 나기 쉽기때문에 늘 주의하라 했건만 끝내 일이 나고야 만것이었다.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모란봉의 《기린굴》

모란봉의 천연기념물인 청류벽화나루를 지나 조금 올라가나면 청류벽에 자리잡고있는 《기린굴》비석을 찾아볼수 있다.

《기린굴》비석은 《기린굴》이라고 한자로 새긴 비석을 대돌우에 올려세운것이다.

비석을 유심히 살펴본데 의하면 크기는 대략 길이 140cm, 높이 50cm, 두께가 20cm정도가 되어있고 대돌은 비석보다는 약간 커보였다.

오른쪽에서부터 《기린굴》이라고 쓴 한자가, 《기묘 4월 일 개준》이라고 세로 쓴 한자가 있었고 비석은 《기》와 《린》자사가 깨어진 상태에서 대돌우에 놓여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기린굴》비석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반드시 출현한다고 하는 기린은 동양의 환상적인 동물로서 수컷을 기, 암컷을 림이라고 한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기묘년은 고려조

기인 10세기경으로 보아지며 비석도 그때쯤에 만들어진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인이 말처럼 타고나던 전설의 《기린마》를 가두어두곤 했다는 마구굴간-《기린굴》에 대하여서는 고려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정사인 《고려사》와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기린굴》에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과 관련된것은 전설도 갖들어있는데 이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에는 《기린굴은 구제궁안 부벽루아래에 있다. 동명왕이 기린마를 이곳에서 길렀는데 후세사람들이 돌을 세워 표식하였다. 대대로 전해오기를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이 굴에 들어갔다 땅속에서 나와 조천석을 딛고 하늘에 올랐으며 그 말(기린마)의 자국이 지금도 돌우에 남아있다.》라고 서술되어있다고 한다.

림금석실장은 15세기에 편찬된 정사의 기록들에 있는



《기린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에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건국시조를 잘 모셔야 나라가 무사태평하고 번영할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 안학궁에 옮겨올 때 시조인 동명왕의 무덤을 옮겨온 고구려사람들이 평양성(장안성)에 수도의 중심지를 옮겨올 때에도 그와 관련된 유적들을 모란봉으로 옮겨온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동명왕전설의 하나

인 《기린굴》전설이 생겨나고 그것이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된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사람들이 동명왕을 그들의 건국시조왕으로, 조선민족의 큰성인으로 숭상하고 존대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모란봉의 《기린굴》비석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발전에서 선조적역할을 한 고구려의 막강한 지위와 후세에 준 문화적영향을 연구하는데서 참고가 되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이었다. 장수영

누구나 좋아하는 《해바라기》 학용품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해바라기》 상표를 단 각종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와 《인들레》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온 나라의 유치원어린이들과 유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원 아이들이 받아안았다.

《해바라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해바라기》 상표를 단 학용품들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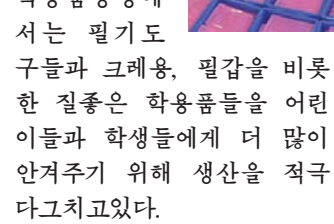
필갑, 연필, 수채화구, 크레용, 색지우개, 지우개, 자, 각종 원주필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호호하고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로 가슴부풀게 한다.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해바라기》 학용품들은 룡봉학용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용품공장건설을 받기하시

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치지 않고 룡봉학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필기도구들과 크레용, 필갑을 비롯한 질좋은 학용품들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두뇌를 계속 총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은 뇌를 정상적으로 단련하는것이라고 한다.

대뇌건강료법

◆ 사고하는것 많이 사고하는것은 뇌를 단련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총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머리를 쓰기 좋아하고 부지런히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 듣는것 명목이나 자기가 즐기는 곡을 자주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빨라져 청각신경의 기능을 단련하는데 리롭다.

◆ 읽는것 책은 지혜의 원천으로서 많이 읽을수록 더 총명해진다. 책을 열심히 읽고 그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지 심심풀이로 읽어서는 안된다.

◆ 심세한 동작들을 하는것 세밀한 수공로동을 많이 하고 글씨련습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타며 물동체조를 많이 하면 지능수준을 높일수 있다.

◆ 말하는것 사람은 대뇌의 지배하에 말을 하게 된다. 논리성이 강하고 내용이 풍부한 말을 많이 하면 좋다.

◆ 유쾌한 기분 유쾌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면 뇌의 생리적 기능을 높이에 리롭다. 본사기자

철갑상어망파구이

철갑상어는 세계적으로 그 자원이 아주 적으며 고기와 알은 고급식품으로 리용되고 있다.

철갑상어망파구이는 편을 낸 철갑상어에 양파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미료를 두고 밀가루를 묻혀 구워낸 요리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철갑상어고기 200g일 때 양파 100g, 밀가루 20g, 빠다 50g, 생강 10g, 파 30g, 리용술 30g, 소금 3g, 흰후추가루 2g을 준비한다.

철갑상어고기는 편을 내고 파와 생강은 다진다. 철갑상어고

기전에 소금, 리용술, 다진 파와 생강, 흰후추가루를 두고 밀가루를 묻고 구워낸다.

단 구이판에 빠다를 놓고 밀가루를 묻힌 철갑상어고기편과 생 양파를 놓는다. 이것을 220°C의 료에 넣어 15분간 구워낸다.

이렇게 하면 고급로리인 철갑상어망파구이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사화

돌칸한중 (6)

그림 김윤일

한중간이 뜨겁고 시간도 어지간히 흘러서 더 참기 어려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셋째도 빨라지고 빨리 세는 데도 로리가 있어서 《한가늘, 두가늘, 세이, 네이, 다아, 여, 일구, 여들, 아후, 백이요!》 하고 탁식으로 쉼을 세는데 열을 세기가 잠시이고 백을 세기가 잠깐이다.

셋을 세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쉼수가 많고적음으로 시간을 가늠한다.

이날 춘득이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최서방님, 많이 보구 가오이다.》

춘득이가 한중간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자 최서방이 불려세웠다.

《이 사람, 한중을 하고나면 뜨끈한 설렁탕이든 단고기죽이든 한그릇 열벌벌하게 먹어야 하네. 이리 오게.》

최서방은 머뭇머뭇하다가 데리고 한중간에 잇달러있는 설렁탕집으로 들어갔다.

야 하네. 우리 나라 속담에 불은 불로 끄라는 말도 있지만 한중뒤에는 뜨끈한 국물을 훌훌 불어가며 먹는게 제격일세. 한중간마다 설렁탕 한그릇을 청해서 먹고 가게 하였다.

춘득이는 그 후더운 인정이 고마와 최서방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크고작은 한중간일을 다 그에게 물어서 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 《한중이 5독을 풀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5독이란 뭇이오이까?》

최서방은 생당숙부리곰팡이에 잎담배를 다져넣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지. 한중이 사람의 몸에서 다섯 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말인데...》

최서방이 담배찌에서 부시게 꺼내어 뒤서내면 탁탁 치자 빨간 불타가 벵벵거렸

다. 불이 당겨서 물물 연기가 피어나는 부시쑥을 곰팡이에 담고 뽀뽀 소리를 내며 빨아서 불을 붙인 다음 최서방은 첫 모금을 맛스레 삼켰다가 후- 하고 후련히 내뿜고 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5독이란 썩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네만 대체로는 이런걸세. 술을 잘못 먹어서 오는 주독이 첫째요

음식이 잘못 먹은데서 오는 음식독이 둘째일세. 그리고 난방을 부려서 오는 후과가 셋째인데 셋째이고 지나친 일을 하고나서 오는것이 바로 넷째인 로독이네. 마지막 다섯째가 먼길 걸은 후과인 길독일세. 어쨌든 한중이 사람들의 몸에 생긴 온갖 잡것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방법이라는것은 명백하네.》

최서방의 사심없는 방조를 받으면서 춘득이는 한중간을 추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때식을 건느는 날은 가끔 있어도 한중간에 불을 지피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중군이 있건없건 도가니를 덂혔고 한중하러 온 사람들이 빈손이